

이주민-선주민 간 관계 현황과 정책과제

초록

- ◎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임.
 -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와 최근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집단 간 관계가 급격히 축소되고 다문화수용성이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며 낮아진 다문화수용성이 집단 간 관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 집단 간 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활성화와 정책 강화가 요구됨.
 - 특히, 집단 간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자 시민의 일상과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지역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기관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배경 및 문제점

■ 다문화수용성과 집단 간 관계의 중요성과 현실

- ◎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임.
- ◎ 다문화수용성은 피상적 차원의 의식을 넘어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구체적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 접촉이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 간 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긍정적 접촉 경험이 확대되면 다문화수용성도 긍정적 전개 가능성이 있음.
 - ▶ 반면,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 사이에 집단 간 분리가 공고해지고 제한된 관계를 통해 부정적 경험이 축적될 경우 다문화수용성 역시 부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짐.

-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와 최근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집단 간 관계가 급격히 축소되고 다문화수용성이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며 낮아진 다문화수용성이 집단 간 관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집단 간 관계와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이미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춘 차이, 다양성 중심의 사회통합 패러다임이 지나는 한계가 대두되면서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대두되어 왔음.
 - ▶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조치가 취해져 오기는 했지만,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지극히 피상적인 차원에서 정책과제가 설정되었을 뿐 시민들의 경험세계에 맞닿아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음. 정책 수단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으로, 다문화수용성과 집단 간 관계에 관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정책 현황

■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형식적 접근

- 2000년대 중반 다문화가족 정책, 외국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등 다문화수용성 관련 의제가 채택되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 중심의 사회통합 패러다임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를 포괄한 접근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 ▶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정책의제는 더 이상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일반적 차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이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음.
 - ▶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학교교육 이외에는 별 다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성인에 대해서는 일반적 차원의 인식 개선 교육조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성인의 다문화 교육, 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는 확인됨.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수용성이나 이주민-선주민 간 관계의 질적인 차원을 고려한 접근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집중거주지역 지자체의 집단 간 관계에 대한 관심

- 주민 중 이주민의 비중이 높고 공공장소 이용 등을 둘러싸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갈등 관리와 집단 간 소통, 화합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로 인증받는 등 특유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 ▶ 현재로서는 상호문화도시 인증 이외에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를 포함한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정부의 제한된 접근과 비교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단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진전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이주민과 선주민을 포괄한 지역사회기관의 시도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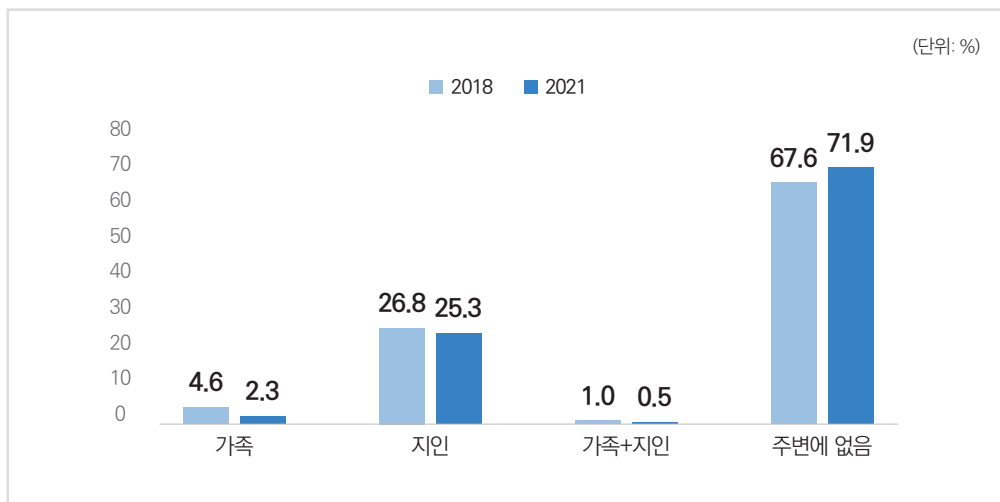
- 지역사회기관 차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를 포괄하여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접근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된 '가족센터'나 집중거주지역 지자체 관련 기관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음. 가족센터는 '통합'을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집단별로 구분해 진행하던 사업을 통합하는가 하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통합' 프로그램 추진 사례도 있음. 집중거주지역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기관 이용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음. 이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지역사회기관에서는 집단 간 갈등 완화, 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을 시도해왔음. 대표적으로는 이주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 구성, 문화체험, 캠프, 여행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 선주민을 떠나 활동 자체에 관심 있는 개개인으로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음.
- 이주민과 선주민의 만남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이 지역사회기관으로서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은 새로운 시도임.
 - ▶ 활동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여 집단 간 상호 교류, 소통이 활성화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역량과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지역사회기관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기대를 갖기 어려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지만, 사업과 예산 구조는 통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다가'사업과 가족 일반과 관련된 '건가'사업이 여전히 구분되어 있음.
 -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모두를 포괄해 상호 이해,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관련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적 보고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음.
 - ▶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일부 가족센터에서는 지자체 지원이나 외부 지원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시행착오' 수준을 넘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임.
- 지자체 관련 기관의 경우 기관 성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집중적 접근을 통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면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 특히,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주민 지원기관에서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관 특성 상 선주민과 접점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선주민 입장에서 본 이주민과의 관계 현황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 관계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공장소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피상적 접촉 빈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주민과 가족이나 지인(친구, 동료, 이웃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28.1%에 불과하고 국민 대다수는 이주민과의 관계가 ‘공백 상태’임.
- ▶ 더욱이, 코로나 기간 중 국제결혼 등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이주민과의 관계는 축소된 상태임.

<그림> 이주민과 관계 유형: 2018, 2021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이주민과 가족, 지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도 그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으며 갈등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다분히 형식적,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음.

- ▶ 선주민과 이주민이 일상적 대면을 통해 유대와 신뢰, 현실 갈등 등을 다층적으로 경험하면서 관계가 진전되어 가기보다는 아직은 피상적인 접촉 수준에서 두 집단 사이의 거리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다문화수용성(관계성 하위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종합)¹⁾

구분	전체 응답자			주변에 동료, 이웃 관계의 이주민이 있는 응답자		
	일방적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일방적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성별		남>>>여	남>>>여			
연령	--		---			
혼인상태		미혼>기혼				
교육수준	중학 이하 <고등, 중학 이하 <<대학 이상		중학 이하 <고등, 대학 이상	중학 이하 <고등		
가구소득	-		---			
이주민과 관계 유무		없음<<<있음	없음<<<있음			
이주민과 친밀 관계 경험					++	+++
이주민과 갈등 관계 경험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가끔/자주 있음	
다문화 교육 경험				없음<있음		없음<<있음
다문화 활동 경험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봉사활동 하는 외국 이주민		--	+++		---	++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	+++			+++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	--	+++			
직장에서 부당 대우받는 외국인 근로자	+++	---				
외국인 범죄자	---	--		---		-
다문화 이해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		-			
이주민 증가가 동네에 미치는 영향 인식	부정적	---	---	---	---	--
	긍정적	+++	+++	+++		+++

주: 1) + 관계는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와 관련된 수용성이 커짐, -는 수용성이 작아짐을 의미함. 예를 들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는 연령이 많을수록 일방적 동화기대와 관련된 수용성이 낮음(이주민이 주류문화집단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기대함)을 뜻함. 또한, 이주민과 친밀한 관계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회피 정서와 관련된 수용성이 높음(거부·회피 정서가 낮음)을 뜻함.

■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 접촉의 양적, 질적 수준이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도의 세부 측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접촉의 양적, 질적 수준이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접촉이론의 핵심 논지가 확인됨.
- 이주민의 증가와 정착,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이주민과 친구, 동료, 이웃 등의 관계를 맺는 이들이 늘어나면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주민 지인과 유대, 친밀감 등 긍정적 경험이 확대된다면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이주민 지인과 갈등 경험이 늘어나면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가뜩이나 제한된 집단 간 관계가 더욱 축소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친밀 경험은 확대하고 갈등 경험은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

■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

- 현재와 같이 이주민과의 관계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 접촉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주민 이미지별로, 태도의 세부 측면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특정한 이미지가 태도의 모든 측면에 일관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는 유지되기 어려움.
 - ▶ 다만, 외국인 범죄자 이미지는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임.
- 이주민과 지인 관계에 있는 집단의 경우 미디어에서 접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 이미지에는 그리 민감하지 않지만, 유독 외국인 범죄자 이미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임.
 - ▶ 결혼이주여성을 폭력피해와 연결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시키는 식의 일반화된 편견은 주위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와 친구, 동료, 이웃 관계를 맺음으로써 완화될 수 있지만, 외국인 범죄자 이미지는 현실에서 이주민과 지인 관계를 맺더라도 그 영향력이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 향후 이주민과 친구, 동료, 이웃 관계가 확대되더라도 외국인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언론 보도가 증가하는 시점에는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가 위축되고 집단 간 관계도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함.

■ 기존 정책의 효과

-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에는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존 교육이나 활동이 부분적으로는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효과가 국민 전체에 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태도의 일부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 더욱이, 주요 정책 수단인 다문화이해 공익 광고 및 홍보영상은 전체 대상자의 일방적 동화기대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거부·회피 정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류행동 의지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판적 점검을 통한 개선이 시급함.

■ 제한된 이주민-선주민 간 관계

- 지역사회기관에서 추진하는 이주민-선주민 공동 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인터뷰 참가자의 특성 상 어느 정도 상대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 성격, 높은 적응 수준, 경제적 안정 등이 뒷받침된 극소수의 이주민, 개방적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적극적이고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했거나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의 선주민만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바로 옆에 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 선주민들에게 이주민은 길거리에서는 보이지만 자신의 생활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임. 이주민은 선주민 사이에 살고 있지만 선주민 사이에서 살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 대면의 불편함과 코로나로 인한 관계 악화

- 서로 구분되어 살아가던 이들이 어쩌다 대면하게 되면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불편함을 겪게 됨. 이주민은 자신을 향한 선주민의 차별과 편견 어린 시선이 불편함. 선주민은 자신이 마주한 이주민이 언론이나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전해 들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지, 국제결혼 문제와 연루되어 있지는 않을지 하는 의심과 불신이 동반되기 쉬움.
- 코로나로 인해 집단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코로나로 인해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은 자신을 향한 직접적 차별, 혐오에 직면해야 했음. 선주민들은 삶이 힘들어지면서 코로나 확산과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출신 이주민이 원망스러움. 그 영향이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이주민, 선주민 모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짐.

■ 서로에 대한 관심의 불균형

- 언어 소통의 문제, 차별과 편견으로 선주민을 만난 이주민은 위축되기 쉽고 그러한 이주민의 모습이 선주민에게는 자신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함.
- 그나마 교회, 학교, 기관 등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연령대, 생애주기가 달라 관심사를 공유하기 어렵고 서로 다른 지위에 서 있어 상호 소통과 교류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 양측 가운데 선주민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은 또래 선주민과의 교류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이주민 엄마들은 선주민 엄마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정작 선주민 엄마들은 이주민 엄마들의 존재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될 여지는 크지 않음.
 - ▶ 심지어 선주민 엄마들 사이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관리되지 않았다' 는 식의 부정적 편견도 발견됨. '관리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 이들에게는 이주민 엄마와의 관계는 상상하기 어려움.
 - ▶ 이에 더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인 계층 요인까지 더해지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엄마로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도전받는 ‘선주민 우위’, 역차별 정서의 부상

- 그나마 이주민의 존재에 관심이 있는 선주민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할 ‘불쌍한’ 존재임. 그런데, 현실에는 이러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주민들도 많이 있음. 이주민을 접할수록 전혀 불쌍하지 않은 이주민을 만날 가능성도 커지고 때로는 자신보다 잘 사는 듯한 이들을 만날 수도 있음 ‘불쌍한’ 존재를 향해 가졌던 시혜적 태도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듯한 이주민을 대하는 순간 돌변하기 쉬움.
-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은 이주민의 등장으로 ‘선주민 우위’의 위계가 위협받게 되는 순간 ‘불쌍한’ 이주민을 향했던 시혜적 태도는 사라지고, 그들은 받지만 자신은 받지 못하는 ‘혜택’에 시선이 집중되는 경향임.
 - ▶ 가족센터 이용자도 예외가 아님. 불쌍하지 않은 이들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거나 자신은 어렵게 얻어야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얻는다면 부당하다고 느낌. 더욱이, 그 사안이 자녀 대학 입학과 같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갈등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음.

공동 활동 참여와 집단 간 관계의 전개 가능성

■ 지역사회기관을 통한 집단 간 대면 기회 마련

-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주민, 선주민 모두에게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집단 구성원과 대면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그런데, 이주민과 활동을 같이 한다고 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 집단 간 대면은 당사자들에게 긍정적 경험일 수도, 부정적 경험일 수도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참가자의 태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한된 본격적 대면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활동 중에는 집단 간 관계보다는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음. 특히,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 봉사활동, 이벤트 등 가족 단위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이주민과 선주민의 대면은 형식적인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참가자가 적절히 구성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

- ▶ 센터 통합 이후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선주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착이 진행된 이주민들은 취업 등으로 바쁜 상황이어서 다문화가족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 ▶ 이주민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성격 상 선주민 모집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큼.
- ▶ 참가자 구성이 원활하지 않다면 활동을 통해 서로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집단 간 벽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음.

■ 집단 간 구분, 위계의 재생산 우려

- 참가자 구성도 적절하고 가족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상호 이해와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아님.
- 이모뵐-조카뵐, 임대인-임차인으로 만난 선주민과 이주민은 상대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소통을 진행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 힘들.
- 게다가 이들의 '함께' 하는 활동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라면 활동 파트너로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위계가 확인되고 집단 간 벽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음.

■ 새로운 관계성 모색

- 다른 한편으로 공동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성이 모색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
- ▶ 이주민, 선주민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으로서 경제적 관심을 함께 풀어가면서 집단 간 벽을 낮춰가는 사례도 있음.
- ▶ 공동육아 품앗이나 합창단 자모회처럼 어머니로서 공통의 경험과 관심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자발적으로 활동 하다 보면 어느새 이주민과 선주민이라는 집단적 범주를 넘어서 어머니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음.
- 오랜 기간 다양한 접촉 경험을 쌓게 되면 이주민/선주민을 일반화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머니들 간의 공동 활동이 진행되면서 상대를 향한 편견을 자각하고 상호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가능성이 싹트기도 함.

■ 집단 간 갈등 예방·관리의 중요성

-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한 이주민-선주민 간 관계가 개개인의 관심과 호의만으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 과정 중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구성원 간에 역할이 고정되고 부담이 편중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 ▶ 사회 전반적으로는 집단 간 구분과 위계가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던 이들은 코로나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 앞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했음.

- ▶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 이주민 특화 지원을 둘러싼 역차별 정서 등으로 활동 과정 중에 갈등이 야기될 위험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집단 간 관계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음.**

- ▶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적절히 다루어 갈 수 있을지 여부로,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면 거리는 좁혀지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적절하게 다루어 간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갈 수도 있음.
- ▶ 그 향방은 참가자 개개인의 시도와 자성,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사회기관의 매개자 역할,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책 자원 할당 등에 달려 있음.

정책제언

■ 선주민-이주민 모두 포괄하는 사회통합 패러다임 정립

● **사회통합 패러다임 전환**

- ▶ 기존) 이주민 중심 --> 향후)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포괄
- ▶ 기존) 이주민 적응, 자녀세대 성장 지원에 초점 --> 향후) 상호 이해와 소통, 교류와 협력 중심

● **상호문화주의의 주요 요소를 정책 기조로 채택**

■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 제1조(목적) -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전반과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적으로 명시
-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 전반의 상호 이해·교류 증진)으로 개정, ‘다문화가족과 사회 전반의 상호 이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시행’ 및 ‘다문화가족과 사회 전반의 상호 이해·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④- ‘센터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명시
- ▶ 제4조(실태조사 등) 개정-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 대폭 강화**

- ▶ 다문화이해교육, 활동, 홍보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개선 방안 도출
- ▶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확립

- ▶ 직장, 학교,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집단 간 관계 현황 점검, 개선 지원: 이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기관, 기업, 지역에서 집단 간 관계 양상, 장애요인 파악, 개선 노력 지원/ 시범사업 실시, 모델 개발
- ▶ 중장기적으로는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를 벤치마킹한 ‘상호문화기관’, ‘상호문화기업’, ‘상호문화지역’ 인증제도 도입, 해당 기관, 기업,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려

● 이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혐오성 표현에 대한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정 노력 권고, 민간 모니터링 활동 지원

- ▶ 외국인 범죄 기사가 미치는 부정적 편견 방지를 위한 언론 단체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다문화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초점을 둔 다문화이해교육 재구성

- ▶ 현실의 다양한 이주민을 발견하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부정적인 이주민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편견 발생 효과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재구성

■ 집단 간 관계 개선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차별,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관련 정책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 ▶ 센터 통합 이후 기관 이용자로서 다문화가족의 ‘주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 ▶ 가족센터 등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집단별 이용 현황과 추이, 이용 상의 장애요인 등 파악, 개선방안 마련
- ▶ 특정 집단에 특화된 지원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 사이에서도 요구가 있는 부분 점검, 지원 대상 조정 등 조치 강구

■ 핵심적 추진체계 확립

●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이주민 지원 등 특정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지자체 운영 시설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 ▶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민 주변화 방지 대책, 집단간 갈등 예방 조치 시행
- ▶ 공공 시설의 집단 간 소통, 교류의 공간 기능 명시

● 집단 간 관계에 관한 ‘가족센터’ 기능 확립

-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간 소통, 교류 활성화’를 가족센터의 사업 목적으로 규정
- ▶ ‘다양한 가족 간 상호 소통, 교류 증진 사업’ 영역 신설
- ▶ ‘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 마련
- ▶ 지자체 가족센터 관련 조직 통합 권고

●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역량 강화

- ▶ 기관 차원, 프로그램 차원의 집단 간 관계 점검 지표 개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 담당자 대상 집단 간 관계 연수, 강사가 참여하는 집단 간 소통 워크숍 개최

● 지역 차원의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 지역사회의 집단 간 관계 관련 사안, 사업 경험 등 교환/지자체, 정부에 대한 제안 사항 발굴. 기관 담당자 연수, 강사 워크숍 등을 추진
- ▶ 상호문화도시 인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차원의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 다문화수용성 및 집단 간 관계 증진 활동 지원 강화

● ‘상호 이해·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가칭)’ 개발

- ▶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개발 및 운영
-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진행
- ▶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다년도 사업으로 기획하고 여러 기관이 공동 추진하도록 개방적 접근 도모
- ▶ 기관 이용자의 집단 간 관계 역량 강화 분야, 이주민의 집단 간 소통 역량 강화 분야, 이주민-선주민이 함께 하는 활동 분야 ‘다문화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핵심 활동으로 구성

■ 다문화수용성 및 집단 간 소통 활동 모델 개발

● 지역사회기관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참가자 간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활동 모델’ 개발, 보급

- ▶ 참가자 구성, 활동 내용과 방법, 강사의 역량,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집단 간 관계의 질적인 측면 고려
- ▶ 시범기관을 지정해 ‘참가자 간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활동 모델’을 개발, 보급
- ▶ 가족센터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에 우선 관심을 두고 시범기관으로 진행해 모델 개발 및 보급
- ▶ 축제, 캠프 등 이벤트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기획, 진행하는 모델 개발

● 이주민-선주민 참가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 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 진행

● 기관 담당자용, 활동 참가자용 집단 간 갈등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

■ 집중거주지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집단 간 갈등 관리 방안 모색

● 집중거주지역 지자체 차원의 집단 간 관계 논의 기구 구성

- ▶ 이주민 대표와 선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해 쓰레기, 소음 문제, 공공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논의, 대안 모색
- ▶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기관이 협력해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 기구 구성
- ▶ 집단 간 관계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 지역의 집단 간 관계 점검, 의제 발굴 기능

● 집중거주지역 주요 지역사회기관 차원의 집단 간 관계 점검, 논의 기회 마련

- ▶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점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이용자의 집단 간 관계 관련 사안 포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과, 지자체(외국인 주민 관련 부서,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